

예배 및 모임안내

2019-43호 2019년 10월 27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03	11. 10	11. 17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윤석진 형제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이수현 집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속1~14, 말1~4, 약1~5, 렘1~5장)
2. 창립기념주일 - 교회 창립은 1983년 10월 23일입니다(36주년)
3. 축하 - 새로이 제직으로 임명 받으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 10월 생일 - 한덕기 성도(15일) 박재기 집사, 이노을 성도(19일)
5. 성찬예식 - 다음 주일(3일)은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6. 귀국 - 문정현, 장경은 집사 가정(11월 1일, 14시35분 브레멘 공항)
7. 나눔의 시간 -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제직임명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23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108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13장 다같이
- 기 도 Gebet 박재기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레 21 : 1 - 9(구p178)..... 박재기 집사
(3.Mose 21:1-9)
- 설 교 Predigt **제사장 규례를 통한 교훈**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15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황희순 집사
- 제직임명 Ernennung zum Gremiumsmitglied 마9:37~38담임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10월 생일 축하 친교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감리교회 창시자인 John Wesley 목사는 물질을 바라보는 법을 온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집을 장식하고자 그림 몇 점을 막 샀던 차에 가사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겨울인데도 얇은 옷 하나로 매서운 추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코트 사 입을 돈을 주려고 지갑을 열었지만, 남은 것은 푼돈뿐이었습니다. 순간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회개했습니다. Wesley 목사가 벽에 걸어들 그림을 사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위에 떠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없어도 그만인 장식품을 샀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Wesley 목사 삶에서 배워야 할 점은 주위의 가난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진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려는 마음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Wesley 목사는 매해 일년 동안 사는데 필요한 적정비용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베풀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이전에 살던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많이 베푸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생활비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쪽을 풍요롭게 하셔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고후8:14)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래디컬 / David Platt 목사
(The Church at Brook Hills 담임목사)

*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이다 - Socrates -